

<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·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>

‘국민의 정권 심판 열망을 담아 범국민 행동 돌입’

30만 명 운집, “김건희를 특검하라!” “국정농단, 국민이 심판한다!” 외침

다음 주부터 국민행동본부 통해 본격적인 천만인서명운동 개시

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통과 결의 다짐

-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고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10%대로 추락한 가운데, 11월 2일(토) 송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<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·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> 범국민대회에는 30만 명 이상 거리를 가득 메운 민심의 분노로 가득 찼다.
- 사전행사부터 당원 대표(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), 국민 대표(배우 이원종) 발언을 통해 ‘총선 민의 불복, 민생 외면 정권’에 대한 가열 찬 성토가 이어졌다.
- 이날 당 지도부는 (박찬대)“김건희 특검 반드시 완수, 불의한 권력 심판하는 길에 국민 여러분 함께해달라”, (김민석)“김건희 윤석열 이단왕국 끝나고 민주공화국 재출발할 것”, (전현희)“정권심판 열차 출발시켜야 할 때, 정치검찰 심판하자”, (한준호)“김건희를 특검하라”, (김병주)“대한민국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어, 이 정권 두고 볼 수 없어”, (이언주)“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만 내려와야”, (송순호)“검찰은 죽었다. 사법 법치 무너져” (주철현)“윤석열 김건희는 헌정문란 공범”을 외치며 규탄했다.
- 참여한 시민들은 서울역에서 송례문 너머 시청까지 이어진 ‘파란 물결 파도타기’로 화답하며, ‘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심판’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셨다.
-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“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되고 있다.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,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,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”며 비판했다.

-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△국민의 압도적 주권의지 김건희·채해병 특검법 즉각 수용 △고사 직전 민생경제 살리는 긴급조치 즉각 시행 △민생경제에 치명적인 전쟁유발 책동 중단 및 한반도 평화의 길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.
-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“언제까지 용산 눈치만 볼 생각입니까” 일갈하며 국민의힘 당명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민을 보고 민심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.
- 아울러 우리 국민께는 “이 정권은 한마디로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‘범법정권’이다. 절망을 벗어나 ‘사라진 꿈’을 되찾고, 과거로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” 강조하며,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난 우리 국민께서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해주실 것을 호소했다.
- 이에 민주당은 오늘(2일) 이재명 당대표의 천만인서명운동 개시 선언과 시도부의 첫 서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범국민행동에 돌입한다.
- 당내 ‘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·특검 촉구 국민행동본부’를 설치하고, 다음 주 시도당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등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.
-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서명의 경우, 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다.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
- 민주당은 전국 곳곳 국민 한분 한분의 결의를 모아, 범법정권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다.
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.
-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윤석열정권에 ‘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’라는 불변의 진리를 일깨워줄 것이다. 끝.

2024.11.2.(토)

더불어
민주당